

19세기 선교사와 언어 접촉으로 형성된 이중어사전 연구 현황*

김기원**

— 목 차 —

1. 서론
2. 중국의 선교사와 이중어사전 연구 동향
 - 1) 연구 기반: 서지 정리와 1차 사료 목록
 - 2) 음운·방언 연구
 - 3) 어휘·개념사 연구
 - 4) 사전학·편찬사 연구
 - 5) 번역사·언어접촉 연구
3. 한국의 선교사와 이중어사전 연구 동향
 - 1) 연구 기반: 서지 정리와 1차 사료 목록
 - 2) 음운·방언 연구
 - 3) 어휘·개념사 연구
 - 4) 사전학·편찬사 연구
 - 5) 번역사·언어접촉 연구
4. 선행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 1) 언어접촉 이론과 선교사 이중어사전 연구
 - 2) 양국 연구의 공통적 한계
 - 3) 중국 연구의 한계
 - 4) 한국 연구의 한계
5. 결론

국문초록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6010408)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본고는 중국과 한국에서 선교사 및 이중어사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공백 영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편찬한 이중어사전은 복음 전파의 도구이자 서양과 동아시아 언어가 구조적으로 마주한 언어접촉의 실험장이었다. 본고는 양국의 연구를 서지 정리, 음운·방언, 어휘·개념사, 사전학·편찬사, 번역사·언어접촉의 다섯 축으로 검토하였다. 양국 연구는 각각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언어접촉 이론적 관점의 부재, 사전 간 계통적 비교 연구의 부재, 연구 대상의 편중이라는 공통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본고는 두 연구 전통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언어접촉 이론적 관점의 도입과 사전 간 계통적 비교를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키워드: 선교사, 이중어사전, 언어접촉, 근대어, 방언학

1. 서론

19세기 동아시아는 서양 문명의 급격한 유입과 기독교 전래를 통해 언어·사상·문화가 전면적으로 접촉한 시기였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은 단순한 종교 활동가를 넘어, 서양의 과학·기술·사상을 체계적으로 이식하며 새로운 개념과 어휘를 번역·창조한 언어의 중개자였다. 그 중심에는 서양어와 중국어의 대응을 정리한 이중어사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전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이자, 서양과 동양의 언어가 처음으로 구조적으로 마주한 실험장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및 동아시아 근대어 형성의 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Morrison의 『華英字典』(1815-1823), Medhurst의 『英漢字典』(1847-1848), Lobscheid의 『英華字典』(1866-1869)에 나타난 번역기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해당 본격 연구에 앞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서 선교사 및 이중어사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공백 영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이중어사전의 편찬은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 현상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Weinreich(1953)로부터 본격화된 언어 접촉 논의는 이중어 사용 환경에서 두 언어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간섭(interference) 현상과 그 결과물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며, 서구 언어학의 주요 담론으로 발전해 왔다. 언어접촉은 정복이나 전쟁 같은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서도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종교의 전파는 인적 이동과 문화적 전이가 수반되는 대표적인 기제이다.¹⁾ 王力은 『漢語史稿』에서 한어 어휘 확장의 외래적 요인으로 북방 민족의 유입, 인도로부터의 불교 수용,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서양 문명 및 기독교의 전래를 꼽았다.²⁾ 19세기는 서구 열강의 진출과 기독교 선교 활동을 매개로 언어접촉이 급격히 심화된 시기로서, 이러한 현상을 고찰하기에 매우 유효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언어접촉 현상을 공간적 층위에서 고찰하면 크게 두 범주로 분절된다. 첫째는 이질적인 개별 언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언어접촉이며, 둘째는 단일 언어 체계 내의 하위 체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언 간 접촉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빈번한 전쟁과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전자인 언어 간 접촉이 논의의 중심축을 형성해 왔다. 반면, 중국의 경우 북방 인구의 대규모 남천(南遷)에 따른 방언 간 접촉이 두드러진 양상을 띤다. 何大安(2004)은 오(吳)·민(閩)·월(粵)·객가(客家) 방언 등 제방언 간의 상호 접촉이 중국어 변천의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역설한 바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선교사의 활동은 동서양 언어접촉의 주요한 매개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방언 간 접촉 양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

1) Uriel Weinreich, Language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New York: Mouton publishers, The Hague. 1953original, 1979 ninth printing, pp.1-6.

2)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2004, pp.587-588.

3) 何大安, 『規律與方向:變遷中的音韻結構』, 北京大學出版社, 2004, p.4.

하였다. 이들이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편찬한 잡지, 서적, 성서, 이중어사전 등은 번역 과정에서 도출된 신조어와 방언 기록을 표준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결과물이다. 특히 이중어사전은 서구 언어와 동아시아 언어 간 접촉의 양상을 집약한 언어사적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19세기 초 중국 남부에 체류한 선교사들의 방언 연구와 사전 편찬 성과는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의 근대 사전 간행과 신생 한자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역시 『영한사전(英韓字典)』(1896) 등의 간행을 통해 이러한 사전 편찬 전통을 수용한 바 있다. 따라서 선교사와 이중어사전은 ‘중국 내 방언 접촉’, ‘중-서 언어접촉’, ‘중-동아시아 언어접촉’이라는 다층적 구조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언어접촉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로 분석된다.

2000년대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선교사가 간행한 문헌을 중심으로 19세기 서양인의 시각에서 기록된 중국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당대 선교사들이 조사한 중국 남부 지역의 방언 기록은 전통적 운서(韻書) 체계와 차별화되는 서양 음운학적 기술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로마자를 활용하여 음소와 성조 단위를 분절적으로 표기한 이 자료들은, 당시 방언의 음운 체계와 그 변천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1차 사료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법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중국 측 연구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CNKI(中國知網)에서 ‘傳教士(선교사)’와 ‘雙語詞典(이중어사전)’을 핵심어로 설정하여 관련 논문과 저서를 검색·분석하였다. 특히 선교사 문헌 중 음운 및 방언 관련 연구의 상당 부분은 林素娥의 〈西洋傳教士漢語方言文獻的語言學研究綜述〉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종합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한국 측 연구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선교사’와 ‘이중어사전’을 핵심어로 설정하여 관련 선행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선교사 및 이중어사전 관련 연구 동향을 서지 정리, 음운·방언 연구, 어휘·개념사 연구, 사전

학·편찬사 연구, 번역사·언어접촉 연구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3절에서는 한국의 연구 동향을 동일한 구성으로 정리한다. 4절에서는 양국 연구의 공통적 한계와 보완 방향을 도출하고, 5절에서 전체 논의를 종합하여 마무리한다.

2. 중국의 선교사와 이중어사전 연구 동향

1) 연구 기반: 서지 정리와 1차 사료 목록

중국에서 선교사 문헌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관심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 초기 연구는 흩어져 있던 선교사 관련 문헌을 수집·정리하는 서지 작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이후 음운·어휘·문법·사전학 연구의 실증적 토대가 되었다.

서목 편찬의 출발점은 遊汝傑(2002)이다. 그는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방언 연구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언별 사전·교재·성경 번역본·통속 독본의 서지 목록을 집성하였다. 특히 선교사들이 번역한 방언체 성경의 판본과 서지 목록을 수집·정리하고, 지역별로 번역의 언어적 특징과 차이를 상세히 해설하였으며, 일반 신도와 대중을 대상으로 제작된 방언 통속 독본과 교화용 교재의 목록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저서는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방언학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중국 최초의 학술적 성과로 평가되며, 이후 연구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기초 서지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개별적인 서목 정리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閩南방언에서는 洪維仁(1991, 1993)이 Carstairs Douglas의 『廈英大辭典』(1873)과 Thomas Barclay의 『廈英大辭典補編』(1923)을 중심으로, Medhurst(1831)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축적된 1831-1873년 민남방언 연구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특히 『廈英大辭典』을 “英漢 병렬사전의 원형”으로 평가

하며, 이후 한어 방언 사전 편찬의 전범으로서의 학술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福州방언에서는 陳澤平(2003)이 M. C. White의 『福州的中國話』(1856), R. S. Maclay & C. C. Baldwin의 『福州方言拼音字典』(1870), C. C. Baldwin의 『榕腔初學撮要』(1871) 등을 포괄하여 福州어권 문헌의 전모를 제시하였다. 粵방언에서는 Yue(2004)와 竹越美奈子(2011)가 서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客家방언에서는 莊初升·劉鎮發(2002)이 바젤선교사 Theodore Hamburg와 Rudolph Lechler가 편찬한 『客英字典』(1905), 『小德客詞彙』(1909), 『啟蒙淺學』(1879) 등을 소개하고 이들 문헌의 교육적·언어학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莊初升(2010)은 영국·미국·프랑스 각 선교단체가 제작한 客家어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였으며, 莊初升·陳英納(2013)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한 네덜란드 선교사 S. H. Schaank(1897)과 P. A. Van Stadt(1912)의 저작을 발굴하여 객가방언 연구의 지역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甌방언에서는 三木夏華(2011)가 寧波·上海·溫州 등지를 아우르는 기초 서지를 편찬하였으며, 이는 이후 錢乃榮, 林素娥 등 학자들의 세밀한 언어사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서지 정리 작업을 통해 확인된 주요 1차 문헌을 방언권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방언권별 주요 선교사 1차 문헌

방언권	주요 1차 문헌
粵방언	『粵語速成』(Ball, 1888), 『廣東省土話字彙』(1828) 등
客家방언	『客英大辭典』(Maclver, 1905), 『客法大辭典』(Rey, 1901) 등
閩南方언	『廈英大辭典』(Douglas, 1873), 『福建方言字典』(Medhurst, 1831) 등
福州방언	『福州方言拼音字典』(Maclay & Baldwin, 1870) 등
甌방언	『上海方言口語語法』(Edkins, 1853/1868), 『寧波土話初學』(1868) 등

이들 1차 문헌은 19세기 중국 남방 방언의 실제 언어상을 로마자 표기와 한자 병용 방식으로 기록한 자료로, 이후 방언사·어휘사·사전학 연구의 핵심

사료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기존 서지 정리는 남방 방언에 편중되어 있으며, 북방 방언 및 내륙 지역 선교사 문헌에 대한 체계적 목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2) 음운·방언 연구

선교사 문헌을 활용한 음운·방언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축적된 분야이다. 연구자들은 선교사들이 로마자로 기록한 방언 자료를 통해 19세기 남방 방언의 음운 체계를 복원하고, 그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여 왔다.

粵방언 연구에서는 음운 복원과 통시적 변화 추적이 중심을 이룬다. 張洪年(2000)과 姚玉敏(2010)은 선교사 문헌을 토대로 19세기 초·중기 광저우어의 변조(變調) 체계를 복원하였으며, 施其生(2004)은 『粵語速成』(1888/1907)과 『How to Speak Cantonese』(1912) 두 교재를 비교하여 당시 陰平調의 음가와 조음 변화를 심층 고찰하였다. 李藍(2007)은 『廣東省土話字彙』(1828) 등 초기 문헌에 사용된 로마자 표기와 기호화 방식을 분석하여, 선교사들의 표기 체계가 후대의 음운 기술과 연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어휘 연구에서는 趙恩挺(2003)과 張滢滢(2011)이 『粵語速成』의 어휘 체계를 현대 광저우어와 비교하여 약 100여 년에 걸친 어휘 변천 양상을 추적하였으며, 黃小嫻(1999, 2000, 2001, 2005)는 訓讀字와 方言用字의 변천, 異序詞 및 어휘사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문법 변화 연구에서는 竹越美奈子(2005, 2011-2015)가 지시사 “個/個/喺” 및 yes/no 의문문의 통시적 변화를 통해 기능어 체계의 변천 과정을 밝혔으며, 郭必之·片岡新(2006)과 金桂桃(2016-2019)는 완성체 표지 “曉”, “了”, “嘸”의 통시적 변화를 고찰하고 선택·정반의문문 구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姚玉敏(2007, 2008, 2019)은 동사 “翻”, 開始體 “起上來”, 그리고 “得=只有” 구조의 문법화를 통해 광둥어의 동태 체계 변화를 설명하였다. 한편 차용어 및 음역어 연구에서는 張洪年(2000)과 張榮榮(2015)이 선교사 문헌 속 음역어의 유형과 용자 방식을 분석

하였으며, 徐睿淵(2016)은 『廈英大辭典』(1873)에 수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廈門方言의 차용어를 출처·유입방식·체계적 영향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客家방언 연구에서는 음운·문법 기술 연구가 비교적 탄탄하게 축적되어 있다. 음운 연구에서는 林英津(1994)과 田志軍(2014)이 『客法大辭典』의 음운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객가방언의 운모 체계와 성조 체계를 복원하였으며, 田志軍(2013b, 2019)은 粵東지역 객가방언의 성모 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역사적 변천 양상을 추적하였다. 어휘 연구에서는 彭欽清(2005)의 『客英大辭典』 분석이 대표적으로, 이 사전에 반영된 海陸방언의 어휘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객가방언 내부의 방언 분화와 지역적 층위를 규명하였다. 문법 연구에서는 柯理思(2006)가 『啓蒙淺學』을 대상으로 방향보어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였고, 莊初升(2007, 2010)은 香港新界 객가방언 문헌을 바탕으로 완성체 표지 “開”, “裏”와 명사성 단어구 구조의 통시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石佩璿·李煒(2014)와 石佩璿(2016, 2018)은 『客話讀本』 등 문헌에 나타난 차비구(差比句)와 반복의문문을 중심으로 객가방언의 문법 체계와 통사적 특질을 기술하였다. 표기 체계 연구에서는 劉鎮發(2011), 李惠萍·莊初升(2015, 2017)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사용된 선교사 로마자 표기의 변천을 추적하고, 한자·로마자 병용 표기의 원리를 분석하였다.

閩방언 연구는 문헌의 시기적 분포가 넓고 지역적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16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필리핀, 福建, 潮州 등지에서 다수의 선교사들이 방언 문헌을 편찬하였으며, 그 결과 음운·어휘·문법·표기 등 여러 층위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종합 연구로는 李如龍·徐睿淵(2007-2010)과 陳澤平(2010)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19세기 민방언 문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음운·어휘·문법의 통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음운 연구에서는 馬重奇(2009-2015b)와 麥嘉湖가 廈門·漳州 방언의 음가와 異讀, 文白異讀 체계를 분석하여 언어적 층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徐宇航(2018)과 徐宇航·張凌(2018)은 실험음성학적 방법과 로마자 자료를 결합하여 鼻音聲母의 去鼻化 규칙을 검증하였으며, 戴黎剛(2007, 2016)은 福州와 莆田지역의 음계 체계를

정리하고 聲母類化 현상을 고찰하였다. 문법사 연구로는 曹茜蕾·貝羅貝(2007)가 16-17세기 閩南話 문헌을 대상으로 “乞”, “使”, “賜”의 세 가지 致使結構를 분석하여 근대 초기 민방언의 통사적 다양성과 어법적 연원을 체계화하였다. 표기체계 연구에서는 黃典誠·李樂毅(1992)와 黃典誠(1992)이 교회 로마자(白話字) 표기체계를 분석하며, 민남 지역에서 로마자 표기가 문자교육 및 선교에 미친 언어사회학적 영향을 논의하였다.

뫼방언 연구는 上海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문헌 자료를 토대로 음계 체계와 통시적 음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胡明揚(1978), 周同春(1988), 陳忠敏(1995), 樸允河(1996) 등은 上海 방언의 음계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石汝傑(1995, 2011)은 동음자표를 이용해 당시 발음의 실제값을 복원하고, 근현대 上海 방언 간의 음운 대응 관계를 비교하였다. 遊汝傑(1998)은 『上海方言口語語法』(1868) 등 교재 문헌을 근거로 上海 방언의 폐음절 음운체계에 서 /-k, -h/ 종성이 /-ʔ/으로 합류한 시점을 추정하였으며, 錢乃榮(2003, 2014)은 19세기 이후 上海 방언에서 현재완성시대의 소실 과정을 통시적으로 규명하고 40여 종의 서양 선교사 문헌과 12종의 일본 학자 자료를 포괄한 방대한 서지를 제시하였다. 지역 확장 연구에서는 上海를 넘어 寧波·溫州·台州 등지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寧波 방언의 통시적 음변은 徐通鏘(1991), 胡方(2001), 袁丹(2015) 등에 의해 상세히 고찰되었고, 溫州 방언의 음운 체계는 鄭張尙芳(1995), 張雪(2015)이 비교하여 성모·운모 체계의 대규모 변화를 밝히는 한편, 성조의 상대적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阮詠梅(2018a, 2018b)는台州 지역의 선교사 문헌, 특히 『新約全書』(1897)를 활용하여 처치식(處置式), 피동식(被動式), 치사식(致使式), 화제구조(話題結構)의 통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능어와 구문 연구에서는 林素娥(2013-2019)가 가장 체계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는 오방언 문헌 전반을 대상으로 순행결구(順行結構), 차비구(差比句), 반복의문문, “有VP” 구조, 지시사 “箇個/箇”, 부정사 체계 등 다양한 기능어와 문장 구조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였으며, 王一萍(2014)은 上海 방언의 주요 동사군(“吃”, “打”, “講” 등)의 의미 확장 및 문법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선교사 로마자 표기 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실증하면서 남방 방언의 음운사 복원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음운 분석에 비해 어휘·문법의 동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며, 방언권 간 병렬 비교나 코퍼스 기반의 정량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로마자와 한자 표기의 상관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교과·저자별 표기 원칙의 정리와 음가 해석의 일관 기준 확립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3) 어휘·개념사 연구

어휘·개념사 연구는 선교사 사전에 수록된 번역어가 어떤 경로로 형성·정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분야로, 중국 근대어 형성의 기원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근대 핵심 개념어의 번역 과정을 음역(音譯)→의역(意譯)→혼합(混合)→술어화(術語化)의 단계적 모델로 설명한다. 張殷全(2004)은 『六合叢談』(1857-1858)을 중심으로 ‘化學’이라는 번역어의 등장과 정착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는 Hudson Taylor-Wylie-王韜로 이어지는 문헌 계보를 통해 “變化之學”이라는 의미 설계가 경쟁 번역어 質理學을 제치고 표준으로 자리 잡은 배경을 분석하였으며, 張燁(2019)과 王琳(2012)은 이 용어가 음역(‘行’계열)에서 의역 중심 체계(氫/氧/氮/碳)로 이행하며 과학용어의 형식 표준화를 완성한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聶長順(2009)은 ‘教育’의 근대화가 단순한 어휘 변천이 아니라 용어·제도·개념의 삼중 전환이었다고 지적하며, ‘教學’에서 ‘教育’으로의 전환이 일본 학제어의 역수입과 함께 1903년 壬寅學制로 제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초기 선교사 사전이 대응어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의 언어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보았다. 李恭忠(2020)은 ‘社會’ 개념의 형성을 society의 번역사로부터 추적하였다. 그는 Lobscheid의 『英華字典』(1866-1869)에서 society가 會結社로 번역된 점에 주목하고, 이 정의가 일본의 ‘社會(shakai)’ 개념과 결합하면서 근대적 공공성의 의미를

획득했다고 보았다. 李慶本(2022)은 ‘美學’의 한역 과정을 다루며, 선교사 사전이 ‘美感·悅心·和諧’ 등 “美” 어휘망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언어 기반 위에서 일본의 ‘美學’(井上哲次郎, 1883)이 도입되어 철학 하위 학문명으로 자리 잡았다고 논하였다. 唐卉(2015)는 문학용어 ‘史詩’의 계보를 분석하면서, 이 용어가 일본 경유 음역이 아닌 의미형 조어(semantic calque)로 형성되었음을 논증하였다. 그는 Morrison, Williams(『英華韻府歷階』(1844)), Lobscheid 사전이 epic을 ‘英雄之詩’ 또는 ‘敘事詩’로 풀이하던 관행이 ‘史詩’라는 조합을 촉발했고, 20세기 초 문학 담론에서 민족서사 개념으로 정착했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사전 항목의 정의·예문·문화 주석이 개념의 의미를 설계하는 단계로 작동하였으며, 출판·교육 제도가 이를 표준화하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어휘가 소수의 핵심 개념어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 전체의 어휘 체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연구는 부재하며, 번역 단계의 기술이 언어접촉 이론과 명시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드물다.

4) 사전학·편찬사 연구

사전학·편찬사 연구는 Morrison·Medhurst·Lobscheid 등으로 이어지는 사전 편찬 계보를 분석하고, 각 사전의 구조적 특징과 후대 사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분야이다.

潘牧天·徐時儀(2024)는 Morrison의 『華英字典』을 재검토하여, 이 사전이 400여 개의 속담과 구어 표현을 수록한 문화 사전의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전이 단순한 번역 도구를 넘어 문화적 해석의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熊英(2017)과 高永偉(2011, 2018)는 Lobscheid 사전을 Morrison·Medhurst·Williams의 계보 속에서 분석하며, 그의 의미분류식 배열이 기존 알파벳식 사전과 달리 중국 독자 중심의 지식 구조를 제시했다고 보았다. 특히 과학·법률·교육 분야의 ‘X學’ 계열 용어가 이 시기에 체계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汪

家熔(2010)은 1902년 商務印書館에서 간행된 『華英音韻字典集成』을 중국인 편찬 주체의 대형 이중어사전으로 평가하며, 선교사 전통을 계승하되 교과서적 실용성을 강화한 점을 강조하였다. 楊慧玲(2013)은 19세기 후반 중국 학자 葉尊孝의 『漢字西譯』을 분석하여, 이는 Morrison의 『華英字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한자를 본으로 삼아 서양어를 번역한 역방향 사전’이라는 점에서 중국 사전학의 주체적 출발을 알리는 사례로 평가하였다. 張燁(2021)은 民國期 사전과 백과류를 문화지리학적 시각에서 읽어내며, 선교사 사전과 商務印書館 사전이 ‘文化’ 개념을 공간화한 지식틀을 제공했다고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전이 단순한 어휘집이 아니라 언어 실험실이자 지식 매개체로 기능하여 한·중·일 간에 순환적 지식망을 형성하였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Morrison·Medhurst·Lobscheid 세 사전 간의 항목·배열·메타데이터의 계승과 변용을 인쇄본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계통화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사전 항목·교과서·법령 문서 간의 삼각 대조를 통해 특정 어휘가 언제 어떤 제도 문서에서 표준화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5) 번역사·언어접촉 연구

번역사·언어접촉 연구는 사전을 언어접촉의 실험실로 간주하고, 서구 개념어의 번역·정착 과정을 언어접촉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분야이다. 이 연구군은 사전이 언어접촉의 매개자이자 기록자로서 서구-중국-일본-한국을 잇는 지식순환망의 핵심 절점이었음을 규명한다.

司徒(2017)는 1800-1900년대 초 영어-중국어 사전의 접촉 현상을 음역·의역·혼합·술어화의 4단계 모델로 제시하며, 사전이 접촉 결과를 기록·중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屈文生(2012)은 19세기 중엽-말의 영어 법률어 번역을 분석하여, law/right/liberty/justice/contract 등의 대응어가 선교사 사전을 통해

정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Medhurst(1847)와 Lobscheid(1866) 사전이 법률 개념 번역의 어휘 인프라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일본을 경유하기 전 이미 중국 내부에 자체 번역망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였다. 沈國威(2019)와 王英姿(2015)는 유사한 변환 단계를 설정하면서, 선교사 사전이 서구 개념어 번역의 언어시험장 역할을 했다고 보았으며, 음역 중심의 초기 사전이 점차 의미 중심으로 이행하고 19세기 말에는 혼성형 번역이 학문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高永偉(2018)와 王琳(2012)은 과학·기술어의 수록과 조어법을 분석하여 Lobscheid 사전이 최초로 “X學” 계열 학문명을 정리한 사전이었음을 지적하였다. 李雲波·田然(2018)은 일본 신조 한자어의 중국 재수용에서 선교사 사전의 음훈 대응표가 매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음형접촉-어의대접의 2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劉寧(2018)은 清末-民初 시기의 한·중·일 사전 편찬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여, Lobscheid의 『英華分類字典』(1866-69)이 일본의 『和英語林集成』(1867)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이 체계가 다시 商務印書館 사전과 한국 초기 사전에 역수입되었다는 “Lobscheid→日本→中國→韓國”의 순환 구조를 실증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사전을 언어접촉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전이 언어접촉의 매개자이자 기록자로서 서구-중국-일본-한국을 잇는 지식순환망의 핵심 절점으로 기능하며 근대 지식의 수용과 전파를 주도하였다는 점은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언어접촉 이론의 핵심 개념을 명시적 분석 틀로 적용한 연구는 드물며, 대부분 번역 단계의 기술에 머물러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선교사 및 이중어사전 관련 연구 동향을 다섯 축으로 검토하였다. 음운·방언 분야에서는 남방 방언 중심의 방대한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북방 방언 및 내륙 지역 연구는 미비하며, 어휘·개념사와 번역사·언어접촉 분야에서는 번역 현상의 기술이 언어접촉 이론과의 명시적 연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전학·편찬사 분야에서는 사전 편찬 계보의 의의를 밝히는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사전 간 항목의 계통적 비교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3. 한국의 선교사와 이중어사전 연구 동향

1) 연구 기반: 서지 정리와 1차 사료 목록

한국에서 선교사 및 이중어사전 관련 연구의 서지적 기반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개화기 언어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있다. 주요 연구 대상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서양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국어 관련 이중어사전과, 중국에서 간행된 선교사 사전이 한국으로 유입된 경로 및 그 영향 관계이다.

한국어 관련 이중어사전으로는 프랑스 선교사 리델(Ridel)이 편찬한 『韓佛字典』(1880), 캐나다 선교사 게일(Gale)의 『韓英字典』(1897, 1911), 언더우드(Underwood)의 『韓英字典』(1890) 등이 핵심 1차 자료로 꼽힌다. 조남호(2016)는 개화기 서양인 편찬 사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다언어 대역 사전의 총람을 시도하였고, 이병근(2001)은 이들 사전의 편찬 배경·구조·언어적 특징을 정리하여 한국 선교사 사전 연구의 기초 서지를 제공하였다. 한편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1-11(박문사, 2012)은 선교사 편찬 사전을 포함한 총 11종의 원문을 전문 수록한 자료집으로, 이후 관련 연구의 서지적 기반을 제공한 중요한 성과이다. 이 연구들은 선교사 개인의 언어 기술이 이후 국어사전 편찬의 전사(前史)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중국 선교사 사전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윤영도(2010, 2016)가 Morrison·Medhurst의 작업을 동아시아 근대 이중어사전의 기원으로 위치시키고, 서구의 사전 편찬 전통이 일본·조선으로 전파된 언어적 연쇄 구조를 분석하였다. 주요 1차 문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한국 선교사 편찬 주요 이중어사전 목록

사전명	편찬자	간행연도
『韓佛字典』	Ridel	1880
『韓英字典』	Underwood	1890
『韓英字典』	Gale	1897, 1911
『英韓字典』	Jones	1914

다만 한국의 서지 정리 연구는 한국어 이중어사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선교사 사전—특히 Morrison·Medhurst·Lobscheid 계열—이 한국 사전 편찬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문헌 비교를 통해 실증한 서지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는 동아시아 사전 편찬 연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공백으로 남아 있다.

2) 음운·방언 연구

한국의 선교사 문헌을 활용한 음운·방언 연구는 중국에 비해 현저히 미진한 상태로, 연구 인력과 방법론 모두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선교사 로마자 자료를 통한 방언사 복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선교사 문헌의 음운·방언학적 분석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성우(2020)는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비교하여, 19세기 후반 서양인들이 한국어 음운 체계를 인식하고 표기화한 최초의 시도를 추적하였다. 이는 선교사 문헌의 표기 체계를 음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드문 성과이나, 개별 사전의 표기 원칙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통시적 음운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중국어 방언 연구와 관련하여 신원철(2022)은 서양 선교사들의 광둥방언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선교사들이 마카오·홍콩·광저우 지역에서 방언을 실질적 선교 언어로 활용하였음을 밝히고, 방언 연구가 성경 번역 및 문체 변화를 반영했음을 제시하였다. 신원철(2023)은 서양인의 한자 학습법을 비교하여, 19세기 선교사들이 한

자를 ‘쓰기’보다 ‘읽기’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부수 체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음을 분석하였다. 신원철(2024)은 예수회와 개신교 선교사를 비교하여, 전자는 관화와 문언문을 중심으로 상류층 설득에 초점을 둔 반면, 후자는 방언을 학습하며 민간과의 접촉을 강화했다는 선교 언어 전략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서양 선교사의 중국어 방언 문헌 연구로서 노혜정(2024)의 연구가 있다. 그는 19세기 서양 선교사가 편찬한 西南官話 관련 사전류 문헌의 대표 저서인 Paul Perny의 Dictionnaire français-latin-chinois de la langue mandarine parlée(1869)와 그 부록(1872)을 대상으로, 편찬 배경·문헌 체제·기초 방언을 어휘·문법·음운의 세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문헌에는 北方官話와 차별화되는 西南官話의 특징이 다수 관찰되며, 특정 단일 지역 방언이 아닌 당시 西南官話 지역에서 통용되던 여러 방언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신원철·구현아·노혜정(2021, 2022)은 토마스 웨이드의 『語言自邇集』 제2판 및 초판 서문을 최초로 한국어로 역해하여, 사전 편찬 과정과 선교사의 중국어 인식, 로마자 표기 체계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에서도 선교사 문헌의 음운·방언학적 접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직 개별 문헌의 소개·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의 연구처럼 방언권별 음운 체계를 통시적으로 복원하거나 방언 간 병렬 비교를 수행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한불사전』·『한영사전』의 표기 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중국 선교사 자료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언어접촉의 실제 양상을 밝히는 연구가 요청된다.

3) 어휘개념사 연구

어휘·개념사 연구는 한국의 선교사·이중어사전 연구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분야이다. 이중어사전이 매개한 서구어-한자어-한국어 간의 어휘 이

동과 의미 변화를 탐구하는 이 연구군은, 사전이 근대 한국어 어휘 형성의 핵심 통로였음을 실증하고 있다.

송정근(2013)은 『한영자전』(1890)을 중심으로 ‘기차’, ‘신문’, ‘일요일’과 같은 신어가 중국어계·일본식 한자어와 경쟁하며 정착하는 과정을 문헌자료를 통해 추적하였다. 이는 근대 한국어 어휘가 단순한 외래어 차용이 아니라, 동아시아 언어권 내의 다중적 접촉과 사회적 선택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임려(2018)는 Lobscheid의 『英華字典』을 분석하여 중국 기원 신생한자어가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와 양무서(洋務書)를 거쳐 한국어로 유입된 과정을 밝혔다. 강용훈(2012)은 이러한 흐름을 ‘근대 개념어 번역’이라는 거시적 틀로 재조명하면서, 이중어사전이 국민국가 언어 형성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 생산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논증하였다. 신원철·송지현(2021)은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의 차용어 표기를 분석하며, ‘이스라엘(以色列)’과 같은 음차 표기의 형성 과정이 근대 중국어 차용어 체계 정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황호덕은 이중어사전의 번역과 유통을 ‘통국가적 생산’의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사전이 단일 언어 체계에 속하지 않고 문화적 경계를 넘는 지식 교섭의 장으로 기능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는 ‘화학’, ‘교육’, ‘사회’, ‘권리’, ‘자유’와 같은 개념어의 번역·정착 과정을 개념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왔으나, 한국의 중국언어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이중어사전에 수록된 어휘가 동아시아 내에서 전파·변형·정착·소멸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어휘 생애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어접촉 이론 등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4) 사전학·편찬사 연구

사전학·편찬사 연구는 한국의 선교사·이중어사전 연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분야로, 초기부터 개별 사전의 편찬 배경·구조·표기 체계 분석을 중심

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은령(2010)은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의 거시·미시구조를 비교하면서, 프랑스 선교사 리텔과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한국어를 인식하고 기술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서구 언어학적 틀이 한국어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밝혔다. 윤애선(2007)은 『한영자전』을 국제표준 기반의 전자사전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자사전 데이터 모델을 통한 근대 사전의 디지털 재구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동경(2022)은 게일 사전의 결합 관계 기술 방식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어 사전학의 내적 발전 단계를 구체화하였고, 한성우(2020)는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비교함으로써 19세기 후반 서양인들이 한국어 음운 체계를 인식하고 표기화한 최초의 시도를 추적하였다. 윤영도(2010, 2016)는 Morrison·Medhurst의 작업을 동아시아 근대 이중어사전의 기원으로 위치시켜, 서구의 사전 편찬 전통이 일본·조선으로 전파된 언어적 연쇄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조남호(2016)와 이병근(2001)은 개화기 서양인 편찬 사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들이 한국어의 근대화과 표준화 과정에서 수행한 중간적 매개 역할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들은 선교사 사전 편찬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기초적 성과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Morrison-Medhurst-Lobscheid-Hepburn 『和英語林集成』(1867)으로 이어진 동아시아 사전 편찬 전통이 어떻게 『한불자전』·『한영자전』으로 이어졌는지를 편찬 목적·표기·음운 기술·자료 경로 등의 측면에서 동일 스키마로 비교하는 계통적 사전학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사전 간 항목의 직접적 계승과 창의적 변용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5) 번역사·언어접촉 연구

번역사·언어접촉 연구는 한국의 선교사·이중어사전 연구에서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분야로, 사전과 번역을 매개로 형성된 동아시아 초국가적 언어장에

다루는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황호덕은 이중어사전의 번역과 유통을 ‘통국가적 생산’의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사전이 단일 언어 체계에 속하지 않고 문화적 경계를 넘는 지식 교섭의 장으로 기능함을 강조하였다. 윤영도(2016)는 Medhurst의 다언어 사전 편찬을 중심으로 1830년대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사전 편찬의 연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대 동아시아의 다언어 체계 형성과 맞물린 언어지식의 순환 구조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조남호(2016)의 다언어 대역사전 총람 연구와도 맞닿아 있으며, 사전이 언어사적 자료를 넘어 근대 동아시아 지식 네트워크의 실질적 매개체였음을 부각시킨다. 신원철(2023)은 서양인의 한자 학습법을 비교하여, 19세기 선교사들이 한자를 ‘쓰기’보다 ‘읽기’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부수 체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음을 분석하였다. 신원철(2024)은 예수회와 개신교 선교사를 비교하여, 전자는 관화와 문언문 중심으로 상류층 설득에 초점을 둔 반면, 후자는 방언을 학습하며 민간과의 접촉을 강화했다는 선교 언어 전략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들 연구는 서양인이 동아시아 언어를 학습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 구조를 복원함으로써, 선교사 언어 연구가 단순한 종교적 도구가 아니라 현지 언어학의 발아점이었음을 드러낸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사전을 동아시아 지식 순환망의 매개로 재해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언어접촉 이론을 명시적 분석 틀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으며, 중국·일본·한국을 잇는 지식 순환의 실제 경로를 사전 항목의 실증적 비교를 통해 검증한 연구도 미흡하다.

이상에서 한국의 선교사 및 이중어사전 관련 연구 동향을 다섯 축으로 검토하였다. 사전학·편찬사 분야에서 탄탄한 성과가 축적되고 어휘·개념사와 번역사·언어접촉 연구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운·방언 연구는 최근에야 첫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언어접촉 이론의 명시적 적용과 사전 간 계통적 비교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4. 선행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1) 언어접촉 이론과 선교사 이중어사전 연구

선교사 이중어사전은 두 언어가 만나는 접촉의 현장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전을 언어접촉 이론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절에서는 선교사 이중어사전 연구에 적용 가능한 언어접촉 이론을 간략히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공백을 확인하고자 한다.

Haugen(1950)은 언어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차용 현상을 형태와 의미의 수입(importation)·대체(substitution) 여부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형태와 의미를 모두 수입하는 loanword, 형태의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자국어로 대체하는 loanblend, 형태는 자국어를 유지하되 의미만 수입하는 loanshift가 그것이다. 이 유형론은 선교사 사전에 나타나는 번역어의 형성 방식—음역(音譯)·의역(意譯)·혼합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선교사 사전의 번역어는 ‘耶穌’, ‘以色列’과 같은 순수 음차(loanword), ‘社會’, ‘教育’과 같은 의미 중심의 번역(loanshift), 그리고 두 방식이 혼재된 혼성형(loanblend)으로 구분되며, 이는 Haugen의 유형론과 상당 부분 대응한다.⁴⁾

Thomason & Kaufman(1988)은 언어접촉의 결과가 접촉의 강도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촉의 결과를 차용(borrowing)과 언어교체(shift)의 두 경로로 구분하고, 접촉의 강도에 따라 어휘 차용에서 구조적 차용, 전면적 혼합으로 이행하는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19세기 중국의 언어접촉 상황은 이 모델에서 차용 경로에 해당하나, 흥미롭게도 그 차용의

4) Einar Haugen, "The Analysis of Linguistic Borrowing," *Language* 26(2), 1950, pp. 210-231.

주도자가 피지배 언어 화자가 아닌 선교사—즉 외부 언어의 담지자—였다는 점에서 비전형적 사례를 구성한다. 또한 선교사 사전은 자연발생적 구어 접촉의 산물이 아니라 고도로 기획된 문어 텍스트라는 점에서, 이 이론의 단순 적용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처럼 두 이론은 선교사 이중어사전 연구에 유효한 분석 준거를 제공하면서도, 사전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판적 적용이 요구된다.⁵⁾

그러나 2절과 3절에서 검토한 중국과 한국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이론적 틀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드물다. 중국의 연구는 음역·의역·혼합·술어화의 단계적 모델을 전제하면서도 이를 언어접촉 이론과 연계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연구 역시 사전을 초국가적 지식 교섭의 장으로 해석하면서도 이론적 준거를 명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이 양국 연구가 공유하는 가장 두드러진 이론적 공백이다.

2) 양국 연구의 공통적 한계

언어접촉 이론의 미적용 외에도 양국 연구는 몇 가지 공통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사전 간 계통적 비교 연구의 부재이다. Morrison·Medhurst·Lobscheid로 이어지는 사전 편찬 계보는 양국 연구 모두에서 언급되지만, 세 사전 간의 항목·정의·예문·배열 방식의 계승과 변용을 인쇄본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에서는 개별 사전의 의의를 평가하는 연구가 축적되었고,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사전 편찬 연쇄의 구조를 거시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두 접근 모두 사전 항목 수준의 미시적 비교로는 내려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어—‘社會’, ‘自由’, ‘科學’ 등—가 Morrison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되었고, Medhurst를 거쳐 Lobscheid에 이르

5) Sarah Grey Thomason & Terrence Kaufman, *Language Contact, Creolization, and Genetic Linguis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이중어사전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항목 단위로 실증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대상의 편중 문제도 있다. 중국의 연구는 음운·방언 분야에, 한국의 연구는 사전학·편찬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양국 모두 어휘·문법의 통시적 변화와 대규모 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코퍼스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인프라가 양국 모두에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정량 분석과 국제 공동 연구로의 확장이 제한되고 있다.

3) 중국 연구의 한계

중국 연구에는 공통적 한계 외에도 몇 가지 고유한 과제가 있다. 기존 연구는 閩·粵·客家·吳 등 남방 방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방 방언 및 내륙 지역 선교사 문헌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미비하다. 19세기 선교사들의 활동이 남방 지역에 집중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西南官話를 포함한 북방 및 내륙 지역 방언 자료의 발굴과 분석은 한어방언사의 균형 잡힌 기술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중국의 연구는 선교사 문헌을 주로 음운사 복원의 도구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선교사 사전은 단순한 발음 기록이 아니라 의미 생산의 현장이었다. 번역과 사전 편찬이 근대 중국어 어휘 체계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음운 중심에서 의미·개념 중심으로 연구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필요가 있다. 방언별 문헌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음에도 이를 통합한 코퍼스 기반의 정량 분석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동일·유사 장르 간 병렬 비교를 통해 회화집·독본·사전 예문·성경 역문을 시기·지역별로 대응시켜 기능어와 문법 표지의 연쇄적 변화를 추적하고, 방언별 문헌을 통합한 코퍼스를 구축하여 음운적 변이의 정량 분석과 통시적 비교가 가능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4) 한국 연구의 한계

한국 연구에도 공통적 한계 외에 고유한 과제가 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로마자 자료를 활용한 방언사 복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선교사 문헌 기반의 음운·방언 연구 인력이 부족하며 연구 방법론적 기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국내 중국언어학 연구가 중국의 연구 경향을 후행적으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선교사 연구가 방언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근대 개념어의 번역·정착 과정을 개념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왔으나, 한국의 중국언어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어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중심으로 19세기 한자어의 생성과 동아시아 내 전파·변형·정착·소멸 과정을 추적하는 어휘 생애사 연구가 요청된다. Morrison-Medhurst-Lobscheid-Hepburn으로 이어진 동아시아 사전 편찬 전통이 어떻게 『한불자전』·『한영자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계통적 사전학 연구도 부족하다. 핵심 사전을 국제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전산화하고 한·중·일 병렬 코퍼스를 구성하여, 항목·의미·음운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공개형 플랫폼을 마련하는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연구 인프라 구축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5. 결론

본고는 중국과 한국에서 선교사 및 이중어사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공백 영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의 연구는 선교사 문헌을 음운·방언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방대한 서지와 방언권별 기술을 축적해 왔다. 閩·粵·客家·吳 방언

권에서 선교사들이 남긴 사전·교재·성경·독본류 자료가 정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모·운모·성조의 통시적 복원, 로마자 표기와 한자 표기의 대응 관계, 문법 표지의 변화가 세밀하게 기술되었다. 어휘·개념사 분야에서는 근대 핵심 개념어의 형성·의미 변천·제도화 과정이 음역·의역·혼성·표준화의 단계로 규명되었으며, 사전학·편찬사 분야에서는 선교사 사전 편찬 계보의 의의가 밝혀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음운 중심의 접근에 편향되어 있으며, 어휘의 의미 변동과 번역 과정을 언어접촉 이론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연구는 사전학·편찬사·개념사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불사전』·『한영사전』을 비롯한 선교사 사전이 한국어 기술의 근대화와 서양 언어학의 수용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동아시아 초국가적 언어장의 형성과 지식 순환망의 구조를 해명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선교사 문헌의 음운·방언학적 접근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 문헌을 활용한 음운·방언학적 연구 기반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중국언어학 분야에서의 본격적 개념사·어휘사 연구는 미진하다.

양국 연구를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공통 공백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언어접촉 이론의 미적용이다. 중국과 한국 모두 번역 현상의 기술에는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Haugen(1950)의 차용어 유형론이나 Thomason & Kaufman(1988)의 접촉 유발 변화 모델과 같은 언어접촉 이론을 명시적 분석틀로 삼은 연구는 드물다. 둘째는 사전 간 계통적 비교의 부재이다. 선교사 사전 간의 항목·정의·예문을 미시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없으며, 이 사전들이 동아시아 이중어사전 편찬에 미친 구체적 영향 역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은 중국과 한국의 연구가 각자의 강점—중국의 음운·방언 연구와 한국의 사전학·개념사 연구—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

19세기 선교사와 언어접촉은 동아시아 언어사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었다.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이중어사전은 단순한 번역 도구가 아니라, 언어가

다른 언어를 만나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접촉의 기록물이었다. 본고가 제시한 연구 현황과 공백의 지도가, 선교사 이중어사전을 둘러싼 동아시아 언어접촉 연구의 심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1) 중국 문헌

- 王 力,『漢語史稿』,中華書局,2004.
- 何大安,『規律與方向:變遷中的音韻結構』,北京大學出版社,2004.
- 遊汝傑,『西洋傳教士漢語方言學著作書目考述』,哈爾濱:黑龍江教育出版社,2002.
- 洪維仁,「杜嘉德『廈英大辭典』及麥都思以來基督新教的閩南語研究(1831—1873)」,『台灣風物』第41卷 第2期,1991.
- 洪維仁,「巴克禮廈英大詞典補編及杜典以後的辭、字典」,洪惟仁主編,『閩南語經典辭書彙編(第四冊)』,台北:武陵出版社,1993.
- 陳澤平,「19世紀傳教士研究福州方言的幾種文獻資料」,『福建師範大學學報』第3期,2003.
- 莊初升·劉鎮發,「巴色會傳教士與客家方言研究」,『韶關學院學報』第7期,2002.
- 莊初升,「清末民初西洋人編寫的客家方言文獻」,『語言研究』第1期,2010.
- 莊初升·陳英納,「早期荷蘭人編印的兩種印尼客家方言文獻」,『文化遺產』第2期,2013.
- 莊初升·李惠萍,「19世紀以來客家方言的羅馬字拼音方案」,『中國方言學報』第七期,北京:商務印書館,2017.
- 張洪年,「早期粵語裏的借詞現象」,丁邦新·餘靄芹編,『語言變化與漢語方言:李方桂先生紀念論文集』,台北:中央研究院語言學研究所籌備處,2000.
- 林英津,「論『客法大辭典』之客語音系」,『聲韻論叢』第二輯,台北:台灣學生書局,1994.
- 田志軍,「『客英詞典』聲母系統及其特點」,『宜春學院學報』第7期,2013.
- 田志軍,「『客法詞典』聲調系統及其特點」,『語言研究集刊』第十二輯,2014.
- 馬重奇,「英國杜嘉德編撰『廈英大辭典』(1873)音系研究」,『勵耘語言學刊』第2期,2014.
- 錢乃榮,『上海語言發展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3.

- 錢乃榮, 『西方傳教士上海方言著作研究: 1847—1950年的上海話』,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14.
- 林素娥, 『一百多年來吳語句法類型演變研究——基於西儒吳方言文獻的考察』,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 林素娥, 「從近代西人文獻看百年前吳語中四種順行結構」, 『方言』第1期, 2013.
- 林素娥, 「19世紀以來吳語反複問句類型的演變」, 『語言研究集刊』第十三輯,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4.
- 張殷全, 「"化學"一詞的由來」, 『化學教育』第1期, 2004.
- 李慶本, 「"美學"譯名考」, 『文學評論』第6期, 2022.
- 李恭忠, 「近代中國"社會"概念的早期形成」, 『社會科學文摘』第8期, 2020.
- 沈國威, 「西方新概念的容受與造新字爲譯詞——以日本蘭學家與來華傳教士爲例」,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40卷 第1期, 2010.
- 張燁, 「從清末民初傳教士編纂雙語詞典看中西方文化交流」, 『文化學刊』第7期, 2019.
- 楊慧玲, 「馬禮遜『漢英英漢詞典』對外向型漢英學習詞典的啟示」, 『外國語文』第32卷 第2期, 2016.
- 高永偉, 「羅存德和他的『英華字典』」, 『辭書研究』第6期, 2011.
- 熊英, 『羅存德及其『英華字典』研究』, 北京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 Chappell, H. & Lamarre, C., A Grammar and Lexicon of Hakka: Historical Materials from the Basel Mission Library, Paris: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e, 2005.
- Haugen, Einar, 「The Analysis of Linguistic Borrowing」, 『Language』第26卷 第2期, 1950.
- Thomason, Sarah Grey & Kaufman, Terrence, Language Contact, Creolization, and Genetic Linguis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Weinreich, Uriel, Language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New York: Mouton Publishers, 1953.

(2) 한국 논저

- 강용훈, 「이중어사전 연구 동향과 근대 개념어의 번역」, 『개념과 소통』 제9호, 2012.
- 이은령, 「19세기 이중어 사전 한불자전(1880)과 한영자전(1911)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2집, 2010.
- 이병근, 「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한국어 대역사전과 근대화」, 『한국문화』 제28집, 2001.
- 윤영도, 「동아시아 근대 이중어사전의 기원 試探」,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7집, 2010.
- 윤영도, 「이중어사전의 연쇄와 동아시아 언어장의 근대적 전환」, 『코기토』 제80호, 2016.
- 윤애선, 「LEXml을 이용한 『한영자전(1911)』의 지식베이스 설계」, 『불어불문학연구』 제87집, 2011.
- 송정근, 「19세기 말 어휘 사용의 한 단면」,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4권 제2호, 2013.
- 한성우,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 2020.
- 신원철·구현아·노혜정, 「『어언자이집(語言自邇集)』 제2판 서문 역해」,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9집, 2021.
- 신원철·구현아·노혜정, 「『어언자이집(語言自邇集)』 초판 서문 역해」, 『중국어문논역총간』 제50집, 2022.
- 신원철·송지현, 「중국어 성경에 반영된 차용어 표기법 연구: '이'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제44호, 2021.
- 신원철, 「서양인에 의한 광둥 방언 연구 문헌 및 그 경향 연구」, 『중국문학』 제111집, 2022.
- 신원철, 「근대 서양인의 한자 인식 및 학습법 연구」, 『한문학논집』 제66집, 2023.
- 신원철, 「서양 선교사가 학습한 중국어 비교 연구」, 『중국문학』 제120집,

2024.

- 노혜정, 「근대 시기 서양 선교사의 西南官話 관련 사전류 문헌 연구」, 『중국문학』 제118집, 2024.
- 조남호, 「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대역사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사연구』 제22호, 2016.
- 정동경, 「게일(J. S. Gale)의 『韓英字典』의 결합 관계 기술 고찰」, 『한국문화』 제98집, 2022.
- 임려, 「근대시기 중국 한자신어의 수용양상과 정착과정 재고」, 『통번역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15.
- 임려, 『근대기 중국 기원 신생한자어의 한국어 유입과 정착』,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황호덕, 「번역가의 윈손, 이중어사전의 통국가적 생산과 유통」, 『상허학보』 제28집, 2010.

Abstract

A Review of Research Trends on Missionary Bilingual Dictionaries and Language Contact in the Nineteenth Century

Kim Ki Won

This study reviews research trends on missionary bilingual dictionaries in nineteenth-century China and Korea, identifying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gaps in existing scholarship. Western missionaries served as linguistic intermediaries who compiled bilingual dictionaries—most notably Morrison's *Huaying Zidian* (1815–1823), Medhurst's *Yinghan Zidian* (1847–1848), and Lobscheid's *Yinghua Zidian* (1866–1869)—which functioned as experimental sites of language contact between Western and East Asian languages. Research in both countries is examined across five axes: bibliographic documentation, phonological and dialectal studies, lexical and conceptual history, lexicography, and translation history. Despite substantial achievements, both traditions share common limitations: the absence of explicit language contact theory, the lack of systematic cross-dictionary comparison at the item level, and uneven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two traditions are positioned to develop in a mutually complementary direction.

Key words: missionary, bilingual dictionary, language contact, modern Chinese vocabulary, dialectology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